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평신도 희년’의 해를 보내면서

2018년은 한국 천주교회에 ‘평신도협의회’가 출범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평신도 희년’ 선포를 주교회의에 요청하였고, 주교회의 2017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평신도 희년을 승인하여 지금 한국 가톨릭교회는 ‘평신도 희년(2017. 11. 19. 평신도 주일 ~ 2018. 11. 11. 평신도 주일)’의 해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레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탈출 23,12 참조),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지냈습니다(탈출 23,11 참조). 안식년에는 이웃에게 곡식이나 돈을 꾸어준 사람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도 안 되고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신명15,1-2 참조). ‘희년’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낸 다음 해로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빚을 탕감 받거나 상속 받은 것을 회복하고, 노예는 해방되어 참된 하느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희년’은 매우 특별한 은총의 해인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년’의 의미는 구약시대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신앙의 은총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귀하게 주신 ‘희년’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살면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빛나도록 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하느님

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평등과 부당함을 청산하여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감사의 희년을 보내는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다음의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하나, 우리는 미사에서 힘을 얻어 사도직 활동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성경을 나침반으로 삼아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분단과 분열의 아픔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안동교구도 지난 2월 사목임원 단체장 연수에서 우리 신자들이 지켜야 할 5가지 실천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월 11일 안동목성동 주교좌성당에서 폐막미사를 끝으로 희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희년의 의미와 정신을 다시 짚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희년은 끝났지만 우리가 결의했던 실천사항들과 희년의 정신은 계속 삶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권혁기 바오로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작품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서 당신의 극진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가난에서 부요를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가진 물질 너머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작고 초라한 과부에게서 영적인 부요함을 깨닫는 은총을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66번 ‘주의 백성 모여오라’

본기도

†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열왕기 상권 17장 10절-16절

안 내 :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묵 상 : 진짜 가난은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하느님을 떠나 사는 것이며, 매일 더 겸손해지지 못하는 영혼의 메마름입니다.

화 답 송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2독서 : 히브리서 9장 24절-28절

안 내 :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묵 상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큰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12장 38절-44절

강 론 : ‘평신도 희년’의 해를 보내면서(1-2쪽)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 178번 ‘성체 앞에’, 504번 ‘우리과 함께 주여’

영성체 후 묵상

좋은 옷을 입고 우쭐해 하며 보란 듯이
당당하게 헌금을 하는 많은 부자들 사이로
작고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누가 볼세라
얼른 헌금함에 가진 것을 모두 넣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겸손하고 부끄러운 마음까지도 함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부를 보며 손가락질 하지만
과부의 전 재산과 주님을 향하는 오롯한 마음까지도 받으신 주님은,
가졌으면서도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과부를 올리십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사람을 보고 대접하지만
하느님 나라에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이 가진 것들은 사람의 눈과 마음을 호릅니다.
가진 것을 손에서 놓는 순간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가지려 애쓰지도 말고 덜 가져서 애달파 하지도 맙시다.
하느님을 더 알지 못하고 살아감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더 마음을 쓰며 사는
저 과부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7번 ‘형제여 손을 들어’, 466번 ‘오 위대한 선물이여(4, 5절)’

※ 공소사목 성금

쌍용공소	100,000원
이순구	1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71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 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11월 11일(연주 제32주일) 목성동 본당
※10:30 평신도 희년 폐막 미사
- 11월 18일(연중 제33주일) 용상동 본당

■ 열린성경강좌 7

- 일시 : 11월 12일(월) 19:30 ~ 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천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안계 본당 주임)

■ 가나혼인강좌

- 일시 : 11월 17일(토) 13:00 ~ 18:00
- 장소 : 안동교구청(3층 대회의실)
- 참가비 : 1인 1만원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구
- 신청자격: 결혼을 앞둔 남·여

■ 고3 피정

- 일시 : 11월 17일(토) 10:00 ~ 18일(주일) 18:00
- 집결장소 및 시간 : 휴천동 성당 10:00
- 대상 : 고3(선착순 25명)
- 준비물 : 미사준비, 배낭, 운동화, 목주, 필기도구, 겨울 옷
- 회비 : 4만원

■ 여학생 수도 성소자 전체 피정

- 일시 : 11월 18일(주일) 09:30 ~ 16:00
- 장소 : 안동교구청 대강당

■ 예비신학생 11월 모임

- 일시 : 11월 25일(주일) 14:00
- 장소 : 농은수련원 성직자 묘지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983-41)
- 준비물 : 미사준비, 목주

■ 여성연합회 피정

- 일시 : 11월 15일(목) ~ 16일(금)
- 장소 : 포항 갈평피정의 집
- 참가비 : 5만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성서, 목주, 세면도구, 따뜻한 옷, 편한 신발
- 오시는 방법 : 지구별 혹은 본당별 개인차량
- 신청마감 : 10월 31일(수) 사목국으로

■ 은총 제1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11월 15일(목) 16:00~18일(주일) 17:00 [3박 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만원
- 접수마감 : 11월 2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 받은 분, 7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꾸르실료 월례미사

- 일시 : 11월 19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 신·구약 성경입문(2년)
- 방법 :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 원서 : <http://uus.pauline.or.kr> 바오로딸
- 접수 : 1월 31일까지/uus@pauline.or.kr
- 문의 : 02)944-0819~24/0840~2(이러닝)

■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 수시 2차 모집 : 11월6일~11월20일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2019년 '명도회 장학금' 지원 대상자 공모

- 부문 :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 신청기간 : 10월 17일(수) ~ 12월 17일(월)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calf@cbck.or.kr)
- 문의 : 주교회의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교구민들이 안동교회사연구소의 「안동교회사연구소 자료집 7 - 간추린 【안동교구 年譜】: 1726-현재」(2014년)를 통해 지난 교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50년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집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1] 여명기에서 조선교구까지 : 1726-1910

◆1840년

▶ 1월 4일(음력 1839년 11월 30일) 오종례(야고보) . 최조이 바르바라 . 이 막달레나가 전주에서 순교하다.

○ 홍재영(프로타시오 洪梓榮 1789~1839 흥낙민의 3子)이 배교(背敎)한 것을 후회하고 전주로 보내져 고문 받다가 참수형(斬首刑)으로 순교하다.

▶ 9월 19일(음) 서치보(요셉, 경상도 첫 신자 서광수의 손자)가 문경 여우목에 살다가 49세로 선종(善終)하여 여우목 마을 뒷산에 안장되다.

◆1841년

▶ 8월 22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조선교구 주보성인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聖母 無厭施胎)’로 하도록 허락하면서 성 요셉 축일을 함께 주보로 지내도록 하다.

◆1845년

▶ 10월 12일 페레올(Ferreol) 주교와 다블뤼(Mgr Antoine Daveluy, 安) 신부 .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 신부가 상해에서 충청도 은진군 강경부근 황산포 나바위로 조선입국에 성공하다.

◆1846년

▶ 9월 16일(음력 7월 26일) 충남 면천 솔뫼 출신, 한국인 최초의 신부(神父)인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 25세) 신부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軍門梟首刑)으로 순교하다.

◆1849년

▶ 4월 15일(사백주일, 부활제2주일) 최양업(토마스) 부제(副祭)를 상해 서가회(徐家匯) 신학원 성당에서 예수회의 강남 대목구장 마레스카(F. Maresca 趙方濟 프란치스코 1806~1855) 주교가 사제(司祭)로 서품(敍品)하다.

▶ 12월 3일 최양업(토마스) 신부가 입국이 불가능한 메스트로 신부를 만주에 남겨두고 의주 변문을 통해 단신 귀국하다.

○ 최양업 신부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지방을 맡아서 전교하다.

◆1857년

▶ 3월 25일 베르뇌(張敬一) 주교가 조선 교회에서 최초로 성모영보 축일(聖母領報祝日)에 교황청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마리 니콜라 다블뤼(安敦伊) 신부를 택하여 밤중에 아주 작은 방에서 보좌주교로 성성(聖性) 하다.

▶ 3월 26일 28일까지 3일간 조선교회 최초의 성직자 회의<조선교구 제1차 시노드>를 소집하여 선교사들의 행동규칙과 활동계획 및 신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하다. 이 때 사본문답(四本問答)을 전부 배우지 못할 경우 세례(洗禮)주지 말 것을 지시하다.

▶ 3월 29일 페롱(Stanislas Feron, 權 스타니슬라오 1827~1903)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여 서울에 도착하다.

○ 페롱 신부가 산막터 신자촌을 중심으로 사목활동을 시작하다.

○ 최양업 신부의 사목관할 구역의 일부이던 경상도 서북부 지역인 상주, 문경, 선산, 예천, 안동 지방을 페롱 신부가 맡아 사목하게 되다.

◆1861년

▶ 3월 30일 칼레(Nicolas Adolphe Calais 姜)신부가 자정(子正)이 지난 시간에 서울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상륙하여 서울에 들어와 3주일간 베르뇌(張)주교 댁에서 지내다. 경상도 동북부 지역인 문경, 봉화, 예천 등지를 맡아 포교하다.

▶ 6월 15일 최양업(토마) 신부가 경상도 순방을 마치고, 베르뇌 주교에게 사목(司牧) 보고차 상경도중 문경 새재 입구인 문경읍 진안리 주막에서 병으로 선종하다.

◆1864년

▶ 12월 비로소 조선에서 『교리문답(敎理問答)』과 8종의 천주교 서적을 간행하다.

○ 베르뇌(張) 주교의 지시에 따라 최형(崔炯, 베드로)이 『천주성교공과(天主聖敎功課)』(4권), 『성찰기략(省察機略)』(1권), 『요리문답(要理問答)』(1권), 『천주성교예규(天主聖敎禮規)』(2권), 『신명초행(神命初行)』(2권), 『회죄직예(悔罪直詣)』(1권), 『영세대의(領洗大意)』(1권), 『주교요지(主教要旨)』(1권) 등 모두 13권의 교리책을 수백 권씩 발간하다.

◆1865년

▶ 12월(양력) 성탄 이후 경상도 예천에서 교난(敎難) 일어난다. 예천의 냉담자(冷談者) '황(黃)'이 가산(家産) 탕진 후 도둑들과 결탁하여 부력이 마을(현 충북 제원군 덕산면 월악리) 신자 집을 습격하여 재물을 강탈하자 신자들이 그를 쫓아냈다. 그러자 그는 군수(郡守)의 도움을 받아 신자 집을 습격하므로 분노한 이 시몬과 전 사베리오가 뒤쫓자 오히려 군수에게 사학죄인(邪學罪人)이라고 알려 전 사베리오와 이 시몬이 체포되다.

◆1866년

▶ 1월 문경 여우목에 살던 이윤일 성인의 아들 이 시몬(20세, 요한?)과 전 사베리오가 공주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하다.

▶ 3월 15일(목) 낮에 문경군 마성면 상내리 한실에서 은신하던 칼레(姜)신부가 예비신자인 자형(姊兄)과 함께 좁쌀을 사러 온 박상근(마티아)을 만나 한 밤중에 30리 거리의 문경으로 떠나다.

○ 한실 주민은 모두가 신자였고, 당시 문경읍내에는 신자 15명이 숨어살고 있었다.

-다음에 계속-



살림터 이야기

자랑스러운 우리문화

김옥한 리오바
(안동가톨릭문인회)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 중 가이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스페인 국영방송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했는데 유레가 드물게 한국문화에 대하여 앙코르 방송까지 하였다는 것이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한국인들의 음식문화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가족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소개하였다. 이유는 식당 안에서 서로에게 이모, 언니, 아지매로 부른다는 것이다. 주문을 하면 요술방망이처럼 금세 음식이 똑딱 차려지고, 아주 급하게 먹는 모습도 이색적이었다고 한다.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국물도 '후루룩'하면 비워지고, 웬만한 양도 십분 이내에 먹는 모습이 신기하다며 해설을 덧붙였다.

또한 한국인들의 다재다능함에 놀랐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소개하였다. 특히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수행하는 모습에서 저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 했다. 가느다란 젓가락을 손에 들고 한 손으로 분주히 고기를 구우면서 다른 손으로는 찜을 싸는가 하면, 그 사이에 술잔을 비우고 음식을 씹으면서 거침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하다는 것이었다. 조용한 가운데 천천히 식사하며 간간히 대화를 나누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껍이나 낯설게 느껴진 모양이었다.

식사 후의 모습도 인상적이더라. 급히 밥을 먹고 일어서는데 서로 밥값을 내려고 싸우는 모습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고 자신의 식대를 각자 계산하는 방식인 더치페이(share)가 일상화된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항상 가족을 중시하는 풍속과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우수한 능력을 소개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식당과 편의점을 부러워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저녁 8시가 되면 문을 닫아서 먹고 싶은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다음 날로 미루어야 하는데 그런 걱정 없는 한국이 천국 같다고 했다. 그리고 휴게소마다 무료로 운영되는 깨끗한 화장실을 크게 칭찬하였다. 유럽의 휴게소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물건을 파는 편의점을 지나야 하는데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이 부럽다고 재 강조하였다. 현지의 한국인들도 앙코르 방송까지 하면서 한국을 소개해주어 뿌듯한 자긍심을 느꼈다고 한다.

나라마다 가치관과 행동이나 사고, 그리고 생활모습과 기질이 각기 다르다. 각종 특색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특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 국민성이 형성된다. 서부를 개척한 미국은 개방적이고, 영국은 전통을 중시하며 독일 국민은 실용적이다. 중국인들은 대륙적이고 보수적이며, 느긋하면서 잇속에 밝다. 지금은 골동품처럼 남아 있지만 칸막이도 없는 공용화장실에서 일렬종대로 앉아 불일을 보는 중국의 화장실 문화는 너무 충격적이다. 일본인들은 질서와 청결, 예절을 중시하지만 욕조물을 버리지 않고 온가족들이 차례로 목욕하는 문화가 있다. 결혼하기 전까지 딸이 아빠와 함께 목욕하는 것도 이색적이고 부자간 맞담배도 우리에게겐 눈 설다.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한다. 부지런한 점에서는 장점이겠으나 인간성이 배제되고 물질지향이 된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아닐 수 없다. 개인주의가 강한 한국인들은 협동심과 단결력은 부족한 편이나 대체로 부지런하고 두뇌가 우수하며 적응력도 빠르다. 특히 뛰어난 인적경쟁력은 세계적 자랑거리다. 근래에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발돋움한 한류 열풍도 한국의 자랑이다. 총과 효를 중시하여 얻은 동방예의지국이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